

# 價値論에 있어서의 辯證法

林 元 澤\*

目 次

I. 効用과 勞動의 辯證法
II. 「直接的 具體者」로서의 Adam Smith · Malthus의 支配勞動價値論
III. 分裂—Marx · Ricardo 投下勞動價値論
IV. 分裂—Jevons · Böhm-Bawerk 限界効用價値論
V. 「被媒介의 具體者」로서의 Marshall의 價格理論

## I. 効用과 勞動의 辯證法

Hegel은, 그의 『大論理學』 第1篇 存在論의 劈頭에서, 「무엇으로써 學問의 始元을 삼을 것인가」 (Womit muss der Anfang der Wissenschaft gemacht werden?)하는 말을 함으로써, 學問에 있어서의 始元에 관한 問題를 提起해 놓았다. 이러한 問題는 經濟學에 있어서도 꼭 같이 提起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무엇으로써 經濟學의 始元을 삼을 것인가」하는.

私見에 의하면, 經濟學에 있어서의 始元은 財貨의 主觀的 必要要素인 効用과 投下勞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sup> 물론 우리는 財貨의 客觀的 必要要素인 使用價値·勞動對象·勞動手段·勞動이 財貨의 主觀的 必要要素인 効用·投下勞動에 先行되고 있다는 事實을 無視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財貨의 主觀的 必要要素인 効用은 財貨의 客觀的 必要要素인 使用價値로 부터, 그리고 또 財貨의 主觀的 必要要素인 投下勞動은 財貨의 客觀的 必要要素인 勞動對象·勞動手段·勞動으로부터 各各 誘導되고 있는 派生的 概念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와같이 財貨의 主觀的 必要要素인 効用·投下勞動이 財貨의 客觀的 必要要素인 使用價値·勞動對象·勞動手段·勞動으로부터 誘導되고 있는 派生的 概念이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財貨의 主觀的 必要要素인 効用·投下勞動이, 經濟學에 있어서의 始元을 形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認識해 둘 必要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理由는, 財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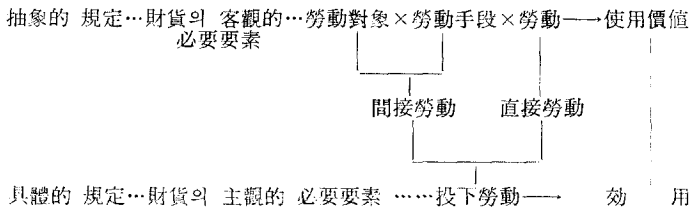
\* 本 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1) 拙稿, 「交換 및 貨幣의 一般理論」, 經濟論集, 第IX卷 第3號, (1970年 9月) 6面.

客觀的 必要要素인 使用價值·勞動對象·勞動手段·勞動은 抽象的인 物理的 人間(生理的 人間)으로서의 人間에 對應되고 있는데 대해서, 財貨의 主觀的 必要要素인 効用·投下勞動은 具體的인 物理的 人間(生理的 人間) 프러스 心理的 人間으로서의 人間에 對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 다음과 같이도 말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財貨의 主觀的 必要要素인 効用·投下勞動은 單純한 物理的 技術的인 즉 抽象的인 使用價值·勞動對象·勞動手段·勞動을, 心理的 人間의 觀點에 立脚해서, 즉 「快樂」(pleasure)과 「苦痛」(pain)의 觀點에 立脚해서, 媒介된 具體的인 規定이므로, 經濟學의 始元은 抽象的인 規定인 財貨의 客觀的 必要要素인 使用價值·勞動對象·勞動手段·勞動이 될 것이 아니라, 具體的인 規定인 財貨의 客觀的 必要要素인 効用·投下勞動이 되어야 한다고도.

이리하여 여기서 抽象的인 財貨의 客觀的 必要要素가, 「快樂」과 「苦痛」이라는 心理的 契機에 의해서 媒介됨으로써, 具體的인 財貨의 主觀的 必要要素로 轉換되게 되는 辯證法이 成立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第 1圖)<sup>(2)</sup>.

第 1 圖



그러면 어찌하여 効用과 投下勞動은 理論經濟學에 있어 理論展開의 始元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의 이에 대한 答은 다음과 같다. 効用과 投下勞動이 財貨를 構成하고 있는 根元的 必然에 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効用과 投下勞動의 둘 또는 그 두 가지 가운데의 어느 한 가지가 빠져도 財貨는 成立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効用과 投下勞動이 理論經濟學에 있어서의 始元이 되고 있다는 것은, 또 理論經濟學의 어느 特殊部門도 根元的으로 効用과 投下勞動의 두 가지에 의해서 說明되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될 줄 생각한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効用과 投下勞動은 經濟現象의 全分野에 걸쳐서, 어떠한 必然的인 作用을 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効用과 投下勞動은 어떠한 必然的인 作用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 보기로 하자. 우선 그 가장 單純하고 基礎的인 경우로서 自給自足的인 單獨生產의 경우를 想定해서

(2) 前掲論文, 8面.

考察을 해 보기로 하자. 이 경우 生産者는 同時に 消費者도 되고 있으므로, 그 生産者는 自己가 生産하고 있는 財貨의 全部効用과 自己가 그 財貨를 生産하는데 投下할 勞動量을 比較해서 全部効用이 投下勞動量보다 클 경우에 限해서만 生産에 着手하려고 할 것이다. 이리하여 이 경우 効用은 目的이 되고 있으며, 投下勞動은 手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리하여 効用은 目的必然이 되고 投下勞動은 手段必然이 되게 된다고 할 수가 있을 줄 생각한다. 그리하여 財貨를 單獨生産할 경우에 있어서도, 目的必然인 効用과 手段必然인 投下勞動을 比較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自給自足的인 單獨生産의 경우에 있어서는, 生産者가 消費者와 同一人으로서 一致되고 있으므로, 目的必然인 効用과 手段必然인 投下勞動의 比較는 同一人인 生産者=消費者에 의해서 行해지게 된다고 할 수가 있을 줄 생각한다.

그러면 財貨의 全部効用은 어떻게 그 投下勞動量과 比較될 수 있다는 말인가. 端的으로 말한다면, 財貨의 全部効用이 投下勞動量으로 換算됨으로써 兩者의 比較가 可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여기서 効用의 測定性에 관한 問題가 提起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上記한 바와 같이, 우리의 見解에 의하면, 効用은 勞動量에 의해서만 測定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즉 目的必然은 手段必然에 의해서만 測定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命題의 基底에는

必然은 必然에 의하여

目的은 手段에 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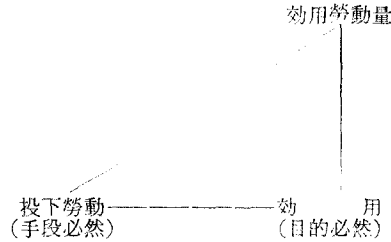
라는 두가지 規準이 存在하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必要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sup>(3)</sup>

그러면 効用은 어떻게 勞動量에 의해서 測定 내지는 表示될 수가 있다는 말인가. 端的으로 말한다면, 어떤 個人主體가 그 財貨의 効用을 獲得하기 위해서 投下를 不辭하는 最大勞動量에 의해서 測定 내지는 表示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 投下를 不辭하는 最大勞動量이 抽象的인 人間勞動에 의해서만 表示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지 않으면 안될 줄 안다.) 이 「그 財貨를 獲得하기 위해서 投下를 不辭하는 最大勞動量」을 「効用勞動量」이라고 한다면, 이 「効用勞動量」의 導入을 契機로 해서 目的必然인 効用과 手段必然인 投下勞動과의 比較가 완전히 可能하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効用과 投下勞動과의 사이에 또 第2圖가 提示하는 바와 같은 辯證法이 成立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sup>(4)</sup>

(3) 前掲論文, 12面.

(4) 우리는 이 「効用勞動量」概念의 威力을 質量을 에네르기로 表示한 아인슈타인의 公式  $E=mc^2$ 의 威力과 比較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第 2 圖



그리고 또 效用勞動量의 概念의 成立을 契機로 해서, 可測定的인 經濟剩餘의 概念이 確立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自給自足的인 單獨生産下에 있어서의 經濟剩餘를 表示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되게 될 것이다.

$$\text{經濟剩餘} = \text{快樂} - \text{苦痛} = \text{效用(效用勞動量)} - \text{投下勞動量}$$

Jevons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다음에 陳述하는 理論은 全的으로 快樂과 苦痛의 計算(calculus of pleasure and pain)에 立脚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經濟學의 目的은 快樂을 말하자면 苦痛의 最小費用으로써 購入함으로써 幸福을 極大化하는 데에 있다.」<sup>(5)</sup> 그러나 Jevons의 이 말은 옳은 말이기는 하나, 완전히 옳은 말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text{經濟剩餘} = \text{快樂} - \text{苦痛}$$

은 옳은 規定이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經濟剩餘는 算出될 수가 없으며,

$$\text{經濟剩餘} = \text{效用勞動量} - \text{投下勞動量}$$

에 의하지 않고서는 經濟剩餘는 算出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手段必然인 投下勞動量이 實質費用을 形成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지 않으면 안될 줄 생각한다.

經濟行動은, 이와같은 經濟剩餘의 追求를 目的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줄 생각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모든 經濟行動은 經濟剩餘 極大化를 追求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줄 생각한다. 그런데 經濟剩餘 極大化는 效用極大化와 勞動 極小化의 두가지 部分으로 因數分解를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注意해야 할 것은, 「效用」·「勞動」·「經濟剩餘」는 「必然」(主觀的 必然)에 속하고 있지만, 「極大化」, 「極小化」는 必然에 속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즉, 「極大化」, 「極小化」는 「人間意志」에 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經濟剩餘 極大化」 또는 「效用極大化」·「勞動極小化」는 「人間意志」에 의해서 媒介된 必然」 즉, Müssen mit Wollen 또는 Menger의 所謂「自然法則의 限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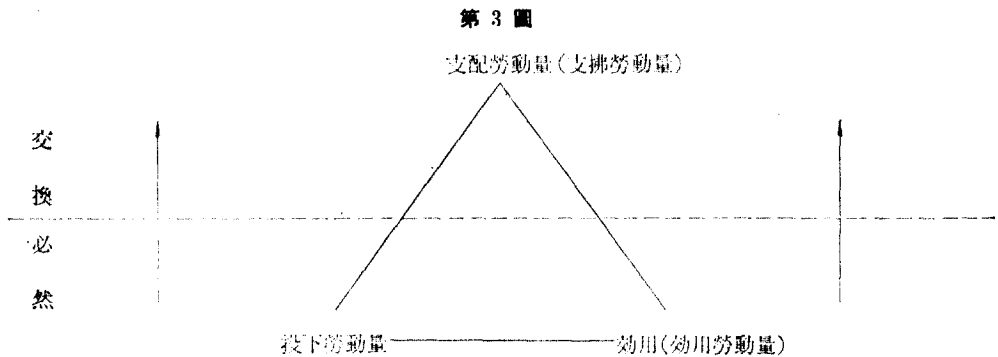
(5) W.S. Jevons, *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 4th ed., 1911, p. 23.

內에서의 人間意志」(human will within the limits set by natural laws)라고 할 수가 있을 줄 생각한다.<sup>(6)</sup> 이리하여 必然에 作用해서 運動을 일으키게 하는 動力이 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極大化」·「極小化」 즉 「人間意志」라는 結論이 誘導되게 될 줄 안다.

그런데 經濟剩餘 極大化는 商品交換을 가져오게 했으며, 商品交換에 있어서도 經濟剩餘 極大化는 하나의 法則으로서 貫徹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強調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가지 形態의 交換에 있어, 즉 物物交換  $W-W'$ 에 있어서도,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left\langle \frac{P^m}{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의 경우에 있어서도, 効用과 投下勞動이 두 가지 必須的인 交換基準이 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즉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이 成立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왜냐하면 商品交換一般에 있어서도 經濟剩餘 즉 交換剩餘가 追求되고 있는데, 그 交換剩餘는 目的必然인 効用과 手段必然인 投下勞動이 없이는 成立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것에 貫徹되고 있는 必然의 威力에 驚歎과 恐怖를 다 함께 가져야만 할 줄 안다.

그러면 商品交換一般에 있어, 効用과 投下勞動量은 어떻게 現象되고 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우리의 답은 다음과 같다. 즉 商品交換一般에 있어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이 成立되게 되고 効用勞動量은 支配勞動量이 되게 되고 投下勞動量은 支拂勞動量이 되게 된다는 것이다. (第3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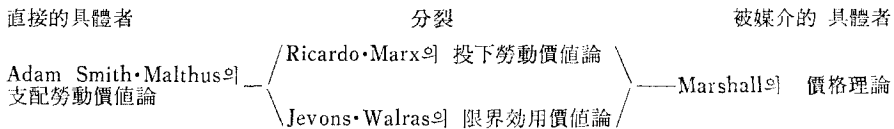
이리하여 「投下勞動量—効用—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支配勞動量」이라는 三肢式(Triade)의 辯證法이 成立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價値論史에 있어, 다음과 같은 辯證法이 成立되고 있다는 것을 把握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古典學派의 Adam Smith와 Malthus는 「直接的」인 形態의 支配勞動價値論을 展開해 놓았으며, 다음에 이 「直接的 具體者」로서의 支配勞動價値論은 Marx,

(6) C. Menger, *Principles of Economics*, Free Press, p.74.

Ricardo의 投下勞動價值論과 Menger·Walras·Jevons 等の 限界効用價值論의 對立으로 分裂되게 되었으며, Marshall에 이르러 드디어 「被媒介的 具體者」로서의 支配勞動價值論으로 投下勞動價值論과 限界効用價值論이 다시 再統合을 하게 되었다고. 그러나 Marshall에게는 充分한 辯證法에 관한 素養과 그리고 또 「歷史的 觀點」이 缺如되고 있었기 때문에, 「被媒介的 具體者」로서의 支配勞動價值論이 完全無缺하게 展開되고 있지를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한다. (第4圖)

第 4 圖



## II. 「直接的 具體者」로서의 Adam Smith·Malthus 의 支配勞動價值論

먼저 「直接的 具體者」로서의 Adam Smith·Malthus의 支配勞動價值論부터 보기로 한다. Adam Smith는, 物物交換  $W-W'$ 에 있어서는 投下勞動價值論이 成立되고 있지만, 資本主義的 生産  $G-W \left\langle \frac{P_m}{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있어서는 支配勞動價值論이 成立되고 있다는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즉 物物交換  $W-W'$ 에 있어서는 投下勞動量基準交換·等價交換이 成立되고 있지만, 資本主義的 生産  $G-W \left\langle \frac{P_m}{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있어서는 支配勞動量交換·不等價交換이 成立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資本의 蓄積과 土地의 私有에 先行되고 있는 社會의 初期 未開의 狀態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對象을 獲得하는데 必要한 勞動量 사이의 比例가 그들의 相互交換에 있어 어떠한 基準을 提供해야 할 唯一의 事情인 것 같이 생각된다. 이를테면 狩獵國民 사이에 있어서는, 한마리의 海狸를 잡는데 所要되는 勞動이 한마리의 사슴(鹿)을 잡는데 所要되는 勞動의 2배가 보통이라고 한다면, 한마리의 海狸는 당연히 두마리의 사슴(鹿)과 交換되게 되는 것이다. 보통 2日勞動 또는 2時間勞動의 生産物이 1日 勞動 또는 1時間勞動의 生産物의 2배의 價值를 갖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이러한 狀況下에 있어서는, 勞動의 全生産物은 勞動者에게 속하게 된다. 그리고 어떤 財貨를 獲得 내지는 生産하는데 投下되는 勞動量은, 이 財貨가 購買해야 할, 支配해야 할 또는 交換할 수 있는 勞動量을 決定하는 唯一의 要因이 된다.」<sup>(1)</sup> 「文明國에 있어서는 그 交換價值가 勞動에 의해서 形成되는 商品은 極히 少數이며, 地代 및 利潤이 그 交換價值에

(1)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edited by E. Cannan, pp. 49-50.

參加하게 되므로 勞動의 年生産物은 항상 그 生産物의 生産과 그것을 市場에 提供하는데 所要되는 勞動量보다 훨씬 많은 勞動을 購買 내지는 支配하게 될 것이다.」<sup>(2)</sup> 즉 「資本의 蓄積과 土地의 私有」가 確立되기 以前 즉 物物交換  $W-W'$ 에 있어서서는 投下勞動量基準交換・等價交換이 行해지게 되지만, 「文明國」 즉 資本主義的 生産  $G-W \left\langle \begin{matrix} P_m \\ A \end{matrix}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있어서서는 支配勞動量交換・不等價交換이 行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Adam Smith의 價値論은, 投下勞動價値論과 支配勞動價値論의 二元的構造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 印象을 주고 있다. 사실 Adam Smith 以後의 價値論史는, Ricardo의 投下勞動價値論과 Malthus의 支配勞動價値論으로 分裂 發展하는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Adam Smith의 價値論은, 보통 말해지고 있는 바와 같이, 投下勞動價値論과 支配勞動價値論의 二元的 構造가 되고 있지를 않다는 것을 꼭 알아야만 될 줄 안다. 왜냐하면 投下勞動價値論은 支配勞動價値論을 類(genus)로 하는 種(species)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物物交換  $W-W'$ 의 初期段階에 있어서, 支配勞動價値論은 投下勞動價値論으로 轉換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다.<sup>(3)</sup> (그러나 支配勞動價値論은 投下勞動價値論을 類(genus)로 하는 種(species)이 될 수가 없다.) 즉 Adam Smith의 價値論은 元來 支配勞動價値論이며, 그의 投下勞動價値論은 物物交換  $W-W'$ 의 初期段階에 適用된 支配勞動價値論이라고 한다면, Adam Smith의 價値論은 一元的 構造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Adam Smith 以後의 價値論史가 Ricardo의 投下勞動價値論과 Malthus의 支配勞動價値論으로 分裂 發展을 보게 된 것은, Keynes도 指摘하고 있는 바와 같이, 理論經濟學을 위해서 그야말로 一大不幸이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될 줄 생각한다. Keynes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만약 Ricardo가 아니라 Malthus가, 19世紀의 經濟學이 그로부터 出發하고 있는 根幹이 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世界는 훨씬 賢明하고 富裕한 場所가 되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sup>(4)</sup>

Malthus는 Adam Smith의 支配勞動價値論을 올바르게 繼承해 가지고 그것을 올바르게 發展시키고 있다. 「Malthus는, 商品의 價値는(Ricardo・Marx가 主張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을 生産하는데 所要된 勞動量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商品이 市場에서 支配하는 勞動

(2) *Ibid.*, p. 56.

(3) 拙稿 前掲論文, 39-40面.

(4) J.M. Keynes, *Essays and Sketches in Biography*, 1956, p. 36. 이에 대해서 Marx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Malthus가 Adam Smith의 弱한面을 根據로 해서, Ricardo가 Adam Smith의 強한面을 根據로 해서 만들어 낸理論에 대해서 하나의 對立의理論을 만들어 내려고 할때, 그는 얼마만큼 幼稚했으며 淺薄했으며 形편없었던가 하는 것은 이미 우리들이 본 바와 같다. Malthus의 價値에 관한 著書와 같이 形편없는 것은 또 없다.」(R.L. Meek, *Marx and Engels on Malthus*, 1953, p.158)

量—즉 그 商品을 獲得할 수 있는 貨幣額을 現在의 賃金率에 있어 雇傭될 수 있는 勞動量에 의해서 測定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Malthus는 資本主義社會에 特有的 重要的 經濟現象을 考察함으로써, 이 價値論에 到達하게 되었던 것이다. 資本主義下에 있어서 商品의 生産 및 再生産의 條件은, 그 商品이 支配하는 勞動量이 그 商品에 投下되고 있는 勞動量보다 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資本家가 받아야 할 利潤量은 超過分의 크기에 依存하고 있기 때문이다.」<sup>(5)</sup> 「同一의 國家 同一의 時期에 있어서는, 勞動과 利潤으로만 分解되고 있는 商品의 交換價値는, 正確하게는, 그에 現實적으로 投下되고 있는 蓄積勞動 및 直接勞動과, 勞動에 의해서 評價되는 總前拂에 대한 利潤量을 加算한 結果로서 얻어지는 勞動量에 의해서 測定되게 된다. 그런데 이 勞動量은 그들 商品이 支配하는 勞動量과 必然적으로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sup>(6)</sup>

이와같이 Malthus는 Adam Smith의 支配勞動價値論을 올바르게 繼承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發展시키고 있다.

그러면 「直接的 具體者」로서의 Adam Smith·Malthus의 支配勞動價値論의 特色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기로 하자. 간단히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즉 Adam Smith·Malthus의 支配勞動價値論에 있어서는, 價格決定原理로서의 限界効用理論과 實質費用을 表示해 주고 있는 投下勞動量概念이 明示적으로 提供되고 있지 않았다는 바로 그 점이다. 그러나 暗示적으로는 示唆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沒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Malthus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需要는 항상 價値에 의해서 決定되며, 供給은 항상 數量에 의해서 決定된다」라고. <sup>(6)</sup>

### III. 分裂——Marx·Ricardo의 投下勞動價値論

Marx는, 商品交換에 있어, 投下勞動量만이 交換基準이 되고 있으며, 効用은 交換基準이 되고 있지를 않다고 主張함으로써 投下勞動價値論을 取하고 있다.

「우리는 2個의 商品, 이를테면 小麥과 鐵을 예로 들어 보기로 하자. 그 交換關係가 어떠한 것이든, 이 關係는 항상 하나의 方程式으로써 表示할 수 있게 된다. 즉 어떠한 量의 小麥은 어떠한 量의 鐵과 等價가 되게 된다. 이를테면 1퀴터의 小麥=a센트넬의 鐵과 같이. 이 方程式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2個의 다른 物質속에, 즉 1퀴터의 小麥 가운데에

(5) R.L. Meek, *op. cit.*, p. 33.

(6) Th.R. Malthus, *The Measure of Value*, 1823, pp. 15-16.

(6) Th. R. Malthus,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2nd ed., 1836, p. 316.



도, 마찬가지로 a센트넬의 鐵가운데에도, 同一의 크기의 共通要素(ein Gemeinsames von derselben Größe)가 存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兩者는 하나의 第3者と 같게 된다. 이 第3者는 또 그 自體로서는 前二者의 어느 것도 아니다. 兩者의 各各은, 交換價値인 限에 있어, 이 第3者에 要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商品의 交換關係를 明白히 特色지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使用價値의 除去(Abstraktion von ihren Gebrauchswert)이다.」<sup>(1)</sup> 「使用價値로서는 商品은 무엇보다 먼저 相異하는 質이다. 交換價値로서는 商品은 다만 量을 달리 할 뿐이며, 따라서 1原子의 使用價値도 包含하고 있지를 았다.」 「지금 만약 商品體의 使用價値를 無視한다면, 여기에 남는 屬性은 오직 하나 勞動生産物이라는 屬性뿐이다.」 「勞動生産物의 有用한 性質과 더불어 그 가운데에 表示되고 있는 勞動의 有用한 性質도 消失되게 된다. 따라서 이들 勞動의 相異하는 具體的인 形態도 消失하게 된다. 이들은 서로 區別될 수 없는 同一의 人間勞動, 抽象的인 人間勞動으로 要約되게 된다.」<sup>(2)</sup>

즉 Marx에 의하면, 投下勞動量(抽象的인 人間勞動에 의해서 表示되는)만이 商品交換의 基準이 될 수가 있으며, 使用價値는 交換基準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Marx의 投下勞動價値論은, 商品交換에 있어 効用이 交換基準이 될 수 없다고 하며 그것을 交換基準에서 除去해 버리고,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 대신에 勞動一元基準交換理論이 되고 있다는 點에서 확실히 「抽象的」이라고 해야만 될 줄 생각한다.

Marx의 投下勞動價値論이 抽象的인 誤謬를 범하고 있다는 事實은, Böhm-Bawerk에 의해서 벌써 銳利하게 指摘된 바가 있다. 왜냐하면 Böhm-Bawerk는 Marx의 投下勞動價値論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諸商品의 交換關係에 있어서도 ——商品이 食料品이든 또는 家屋이든 또는 醫療品이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이들 商品의 使用價値가 그와 같이 現象되는 特殊한 樣相은 除去될 수가 있어도, 그러나 使用價値一般(Gebrauchswert überhaupt)은 결코 除去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그가 「使用價値一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効用」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찮을 줄 생각한다. 그리하여 Böhm-Bawerk는, Marx는 「어떤 事情一般의 除去」(Abstraktion von einem Unstände überhaupt)와 「特殊한 樣相의 除去」(Abstraktion von den speziellen Modalitäten)를 混同하고 있다고 批判하고 있다.<sup>(3)</sup> 즉 効用과 使用價値를 混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Böhm-Bawerk의 Marx의 勞動一元基準交換理論에 대한 批判은 그야말로 核心을 찢었다고 볼 수가 있으며, 아무도 이에 대한 辨明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Hilferding은 Böhm-Bawerk의 이와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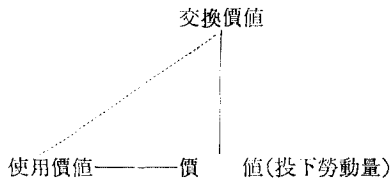
(1) K, Marx, *Das Kapital*, I. S. 41.

(2) *Ibid.*, S. 42.

(3) E. von Böhm-Bawerk, "Zum Abschluss des Marxschen Systems," *Kleine Abhandlung über Kapital und Zins*, 1926, S. 379.

은 批判에 대해서 反批判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反批判은 전혀 成立不可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Hilferding은 「如何한 交換價値도, 만약 그것이 使用價値가 아니라고 한다면 存在할 수가 없다는 것——이것은 Marx自身 완전히 知悉하고 있는 事項이었다——으로부터, 推論할 수가 있다」<sup>(4)</sup>고 말 함으로써, 「使用價値一般」 즉 効用이 交換基準으로부터 捨象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Hilferding은 또 다음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使用價値一般」 즉 効用이 交換基準이 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特殊한 樣相의 除去 즉, 具體性 그대로의 使用價値를 除去하는 경우에는, 나는 나에게 있어 使用價値一般을 除去한 것이 된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 使用價値를 그만 두는 瞬間, 비로소 나는 그것을 交換에 돌리게 된다」<sup>(5)</sup> (傍點原書) 이와같은 Hilferding의 Böhm-Bawerk의 批判에 대한 反批判이 充分한 妥當性을 지니고 있지를 못하다는 것은 더 說明할 必要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리하여 Marx에 있어서는, 「使用價値——價値(投下勞動量)——交換價値」라는 三肢式이 成立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은 價値圖式을 提示해 주고 있는 것이다(第5圖).

第 5 圖



여기서 Marx의 投下勞動價値論에 展開되고 있는 辯證法에 관해서 잠시 考察을 해보기로 하자. Marx는, 『資本論』 第1卷 第2版 後序에 있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나의 辯證法의 方法은, 그 根本에 있어 Hegel의 方法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正反對이다.

Hegel에 있어서는, 思惟過程은 現實의인 것의 造物主이며, 現實的이라는 것은 思惟過程의 外的 現象을 이루는데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리고 그는, 思惟過程을 理念이라는 名稱下에 獨立的인 主體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反對로, 理念的인 것은 人間의 頭腦에 轉移되고 翻譯된 物質的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sup>(6)</sup> 즉 Hegel의 辯證法은 觀念

(4) R. Hilferding, "Bohm-Bawerk's Criticism of Marx" *Karl Marx and the Close of his System by Eugen von Böhm-Bawerk and Böhm-Bawerk's Criticism of Marx by Rudolf Hilferding*,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Paul M. Sweezy, 1966, p. 125.

(5) *Ibid.*, pp. 125-126.

(6) K. Marx, *a.a. O.*, SS. 17-18.

辯證法인데 대해서, 自己의 辯證法은 唯物辯證法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이 Hegel을 「죽은 개(犬)」로서 取扱하고 있을 때, 그는 「公公然히 그 偉大한 思想家의 弟子」라는 것을 告白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는, 價値論을 取扱하고 있는 場所에 있어서는, Hegel의 特有的 表現法을 導入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辯證法은 그에 있어서는 倒立되고 있는 것이다. 神秘的인 殼에 쌓여 있는 合理的인 核心을 把握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轉倒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sup>7)</sup>

이와같은 Marx의 辯證法에 대한 見解에 대해서, 우리의 辯證法에 대한 見解를 陳述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되게 될 것이다. ① Marx는, 辯證法이 觀念辯證法이나 또는 唯物辯證法이나 하는 것에 관해서 무척 神經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私見에 의하면, 辯證法이 觀念辯證法이나 또는 唯物辯證法이나 하는 것은 枝葉末端에 속하는 事項이라는 것이다. 私見에 의하면, 辯證法의 核心은 眞理를 被媒介的인 具體者・全體者 가운데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思考態度에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Hegel은, 「眞理는 全體」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辯證法의 基本態度는, 「이것이냐 저것이냐」(Entweder-oder)가 아닌 「이것도 저것도」(Sowohl-als-auch)라야만 될 줄 생각한다. 그러므로 辯證法은, 本質의 으로, Bucharin이 말하고 있는 「理論的 折衷政策」(theoretische Versöhnungspolitik)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곧 우리의 見解이다.<sup>8)</sup> 즉 그것은 相反되는 여러 理論을 서로 媒介하고 折衝하고 結合하는 方法인 것이다. ② 그러므로 Marx가 辯證法을 「그 本質上 批判的이며 革命的」이라고 規定하고 있는 것은, 辯證法의 基本精神과 完全히 背馳되고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될 줄 생각한다. 왜냐하면 辯證法은 其他 어떠한 것이 될 수 있어도, 오직 「革命的」인 것만은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革命的」인 것은, 結局 直接的・抽象的인 것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最極端한 것에 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Marx는 辯證法의 基本精神인 折衷主義를 「生氣가 없는 折衷主義」라고 말함으로써, Marx의 辯證法이 얼마만큼 反辯證法的인 것이냐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Marx의 辯證法은 自稱 辯證法이지, 事實에 있어서는 辯證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가짜 辯證法은 價値論의 展開에 있어 如實히 馬脚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效用基準交換理論이 벌써 그의 앞에 提示되고 있었는데도 不拘하고, 그는 그것을 排擊할 줄만 알았지 吸收할 줄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Condillac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商品交換에 있어 같은 價値와 같은 價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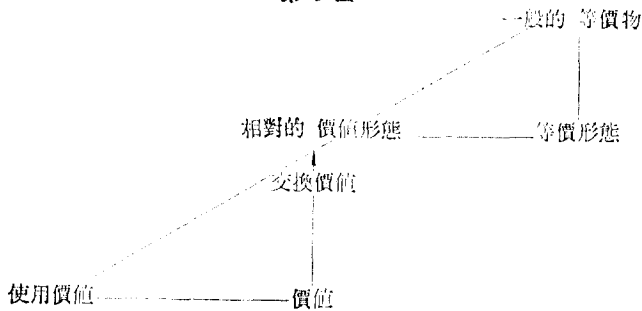
(7) *Ibid.*, S. 18.

(8) N. Bucharin, *Die politische Ökonomie des Rentners*, 1925, S. 180.

가 交換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事實은 그 反對이다. 兩契約者의 各各은 恒상 보다 큰 價値에 대해서 보다 작은 價値를 준다. …實際로 恒상 同一價値가 交換된다면, 어떠한 契約者도 조금의 利益도 獲得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兩者가 다같이 利得을 보고 있으며 또 보아야 한다. 그 理由는 무엇인가. 財貨의 價値는 單純히 財貨와 우리들의 欲望의 關係에 依存한다. 한 사람에게 큰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작다. 그리고 그 反對도 成立된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消費에 不可缺의 것을 販賣한다는 것은 前提되고 있지 않다.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必要한 財貨를 獲得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不必要한 것을 提供하려고 한다. 우리들은 보다 큰 것을 얻고 보다 작은 것을 준다…(以下 略)》Condillac는 使用價値와 交換價値를 混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그럼에도 不拘하고 Condillac의 議論은 近代經濟學者에 의해서 反復되고 있다.<sup>9)</sup> 以上の 引用文章에 있어 Condillac은 効用基準交換理論을 展開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Marx는 그와 같은 Condillac의 効用基準交換理論을 自己體系內에 吸收하려 하지 않고, 「革命的인」(!) 見地에 立脚해서 다만 排擊만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하여 手段必然 즉 實質費用을 表示하고 있는 投下勞動量이 價格을 表示하고 있는 것으로 歪曲됨으로써 「革命的인」 自家矛盾을 露呈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反辯證法的인 Marx의 投下勞動價値論은 全的으로 잘못된 價値形態論(貨幣論)을 展開시켜 놓았다(第 6圖).

第 6 圖



앞에서 Marx가, 價値論을 展開하는 場所에서, Hegel의 用語를 導入해 놓은 바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相對的 價値形態」·「等價形態」·「一般的 等價物」 등의 概念이 아마도 그가 Hegel의 흉내를 내서 操作해 낸 概念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普及해 두 고자 하는 것은, Marx가 모처럼 Hegel 흉내를 내서 만들어 낸 이들 概念이 完全히 잘못된

(9) K. Marx, a.a. O., S. 166.

概念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 本質이 批判的이며 革命的인」 辯證法을 適用해서 도처럼 貨幣論을 展開해 놓았지만, 그의 貨幣論은 貨幣의 一般的 交換手段機能, 一般的 價値尺度機能을 도저히 說明해 낼 수가 없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10) 眞正한 貨幣論 즉 眞正한 貨幣의 一般的 交換手段機能・一般的 價値尺度機能에 관한 說明은, Marx가 그렇게도 排擊해 마지 않았던 「折衷主義的」 理論 즉 眞正한 辯證法에 立脚하고 있는 즉 Sowohl-als-auch의 方法에 立脚하고 있으며 徹頭徹尾 「그 本質이 反革命的인」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에 立脚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이미 論證한 바가 있다. (11)

다시 한번 反復해서 말해 두지만, 投下勞動量은 手段必然 즉 實質費用을 表示하고 있으며(交換에 있어서는 投下勞動量은 支拂勞動量으로 轉化된다), 價格을 表示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價格을 表示하고 있는 것은 限界効用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Marx의 投下勞動價値論도, 物物交換  $W-W'$ 의 初期에 있어서는 그 成立이 可能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지 않으면 알될 줄 생각한다. (12)

Marx는, 商品價格은 同一種類의 商品의 여러 相異한 「個別的價値」= 個別投下勞動量을 平均한 「社會的價値」(「市場價値」)= 平均投下勞動量에 의해서 決定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反해서, Ricardo는 商品價格은 同一種類의 商品의 여러 相異한 個別投下勞動量 가운데에서 最大投下勞動量에 의해서 決定된다고 말하고 있다. 「모든 財貨의 交換價値는, 그것이 工業生産物이든 鑛産物이든 또는 土地生産物이든 간에, 항상 가장 有利한 그리고 또 生産의 特殊便益을 가지고 있는 者가 獨占的으로 享有하고 있는 事情 밑에서 그것을 生産하는데에 所要되는 比較的 少量의 勞動(less quantity of labour)에 의해서 決定되지 않고, 이러한 便益을 갖지 않으며 繼續 가장 不利한 事情——여기서 가장 不利한 事情이란, 必要生産物量을 供給하기 위하여 行해지고 있는 條件이 가장 不利하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밑에서, 그것을 生産하고 있는 사람에 의한, 그 生産에 必然的으로 投下되는 比較的 多量의 勞動(greater quantity of labour)에 의해서 決定되게 된다는 것이다. (13) 즉 Marx는 平均投下勞動價値論을 取하고 있는데 對해서, Ricardo는 最大投下勞動價値論(限界投下勞動價値論)을 取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줄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해 두고 넘어 가야 할 事項은, Marx의 平均投下勞動價値論은 完全히 틀린 理論인데 對해서, Ricardo의 最大投下勞動價値論(限界投下勞動價値論)

(10) 拙稿 前揭論文, 61—64面.

(11) 同上 45—54面.

(12) 同上 39—40面.

(13) D. Ricardo,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Everyman's Library, p. 37.

은(抽象的으로) 옴은 理論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Ricardo의 最大投下勞動價值論(限界投下勞動價值論)으로 부터는 右上形態의 供給曲線의 誘導될 수 있는데 대해서, Marx의 平均投下勞動價值論으로 부터는 右上形態의 供給曲線이 誘導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 IV. 分裂——Jevons·Böhm-Bawerk의 限界効用價值論

限界効用價值論은, 投下勞動價值論이 成立된 後, 거기에 反撥해서 發生된 것인 만큼, 限界効用價值論은 投下勞動價值論에 대한 Heterothesis가 아니고 분명히 그에 대한 Antithesis라고 할 수가 있을줄 생각한다. 投下勞動價值論이 勞動一元基準交換·等價交換에 관한 理論을 展開하고 있는데 대해서, 限界効用價值論은 効用一元基準交換에 관한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投下勞動價值論이 價格(相對價格·絕對價格)은 投下勞動量에 의해서 決定된다고 主張하고 있는데 대해서, 限界効用價值論은 價格(相對價格, 絕對價格)은 限界効用に 의해서 決定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Jevons는, 「任意的 2財貨의 交換比率은 交換完了後에 消費에 利用되는 그 財貨의 最終効用度(限界効用)의 比率과 反比例하게 된다<sup>(1)</sup>」는 限界効用價值論을 提示해 주고 있다. 지금  $a, b$ 를 兩團體  $A, B$ 의 兩商品  $W, W'$ 의 所有量,  $x, y$ 를 兩商品  $W, W'$ 의 交換量,  $\phi_1(a-x), \phi_1y$ 를 交換後에 있어서의  $A$ 의  $W, W'$ 에 대한 限界効用,  $\phi_2x, \phi_2(b-y)$ 를 역시 交換後에 있어서의  $B$ 의  $W, W'$ 에 대한 限界効用을 各各 表示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음 交換方程式이 成立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frac{\phi_1(a-x)}{\phi_1y} = \frac{y}{x} = \frac{\phi_2x}{\phi_2(b-y)}$$

이것은  $xW-yW'$ 에 있어,  $x \cdot \phi_1(a-x) = y \cdot \phi_2y$  또는  $x \cdot \phi_2x = y \cdot \phi_2(b-y)$ 라는 關係가 成立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있어서는 限界効用이 物物交換  $W-W'$ 에 있어서의 相對價格을 決定해 주는 根據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Böhm-Bawerk도 効用一元基準交換理論을 展開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다. 즉 Böhm-Bawerk의 有名한 말(馬) 市場의 例示에 의한 絕對價格 決定理論 즉 「限界對偶의 法則」이 바로 그것이다.

Böhm-Bawerk는, 말(馬)을 한마리씩 販賣하고자 하는 8명의 販賣者와 말(馬)을 한마리씩

(1) W. S. Jevons, *op. cit.*, p. 100.

購買하고자 하는 10名의 購買者로써 形成되고 있는 말(馬)市場을 想定한다(第 7圖).<sup>(2)</sup>

第 7 圖

販賣者		購買者	
$B_1$ 의 말에 대한 評價	=100fl	$A_1$ 의 말에 대한 評價	=300fl
$B_2$	" =110fl	$A_2$	" =280fl
$B_3$	" =150fl	$A_3$	" =260fl
$B_4$	" =170fl	$A_4$	" =240fl
$B_5$	" =200fl	$A_5$	" =220fl
$B_6$	" =215fl	$A_6$	" =210fl
$B_7$	" =250fl	$A_7$	" =200fl
$B_8$	" =260fl	$A_8$	" =180fl
		$A_9$	" =170fl
		$A_{10}$	" =150fl

그리하여 말(馬)의 價格은, 2組의 限界對偶( $A_5A_6B_5B_6$ )의 主觀的 評價에 의해서 決定되게 된다는 理論을 展開하고 있는 것이다. 즉 말(馬)의 價格은 需要量과 供給量を 均等하게 만드는 範圍內에서(5頭), 즉 215프로링을 上限으로 하고 210프로링을 下限으로 해서, 그 사이에서 決定 된다는 것이다. 이 Böhm-Bawerk의 絶對價格 決價理論이 왜 効用一元基準交換理論이 되고 있는가 하면, 第 7圖에 있어, 販賣者의 供給價格과 購買者의 需要價格이 모두 다 限界効用理論의 基礎 위에 立脚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를테면 「販賣者  $B_1$ 의 말(馬)에 대한 評價=100프로링」이라는 것은, 販賣者  $B_1$ 가 自己가 市場에서 販賣하려고 하는 말(馬)에 대한 効用이 100프로링이라는 말이고, 「購買者  $A_1$ 의 말(馬)에 대한 評價 =300프로링」이라는 것은, 購買者  $A_1$ 가 自己가 市場에서 購買하려고 하는 말(馬)에 대한 効用이 300프로링이라는 말이다. 그리하여 여기서 供給價格은 「뒤집은 需要價格」이 되고 있는 것이다.

以上에서 본 Jevons·Böhm-Bawerk의 價格決定理論에서 우리가 指摘할 수 있는 하나의 特色이라고 할 만한 것은, 그들의 理論에 있어서는, 投下勞動量이라는 概念이 完全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事實이다. 물론 그들도 生産에 있어 投下勞動이 必要不可缺少이라는 事實은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 生産過程에서 必要不可欠한 投下勞動이 交換過程에 있어서도 必要不可欠한 作用을 하고 있다는 事實을, 그들은 認定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이 點에 있어, Walras·Wicksell도 Jevons·Böhm-Bawerk와 꼭 같은 態度를 取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줄 생각한다. 이리하여 Jevons·Walras·Böhm-Bawerk·Wicksell等은, 商品交換 내지는 商品賣買에 있어서는 効用만이 作用을 하고 있으며, 投下勞動量은 아무런 作用도 하지 않을 줄 알고 있다는 主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點에서 우리들은 Jevons·

(2) E. von Böhm-Bawerk, *Positive Theorie des Kapitals* I. 4 Aufl., 1921, S. 279.

Walras·Böhm-Bawerk·Wicksell 等の 効用一元基準交換理論의 抽象의 性格을 指摘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財貨構成의 主觀的 必要要素의 하나인 投下勞動이 交換基準에서 脫落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무어라고 말하더라도 完全히 잘못된 理論展開이기 때문이다. Bucharin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一定量의 生産物이 하늘에서(von Himmel) 똑 떨어지는 場所에서 運動法則을 發見하는 일은 힘드는 일이다」(傍點筆者)<sup>(3)</sup> 사실 Jevons·Böhm-Bawerk 等の 効用一元基準交換理論에 立脚하고 있는 價格決定理論은, 財貨는 人間이 땀을 흘려 生産해 낸 것이 아니고, 마치 「하늘에서」 똑 떨어진 物件인 같이 取扱하고 있는 것이다.

商品交換 내지는 商品賣買에 있어 投下勞動이 交換基準으로 부터 除去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意味하고 있는 것일까. 端的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手段必然으로서의 勞動費用 또는 實質費用이 除去되고 있다는 말이 되게 될 줄 안다. 물론 効用一元基準交換理論에 立脚하고 있는 價格決定理論도 費用이라는 것을 認定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내세우는 「費用」이란, 결코 手段必然으로서의 勞動費用 내지는 實質費用을 意味하지 않고 있으며, 「犧牲된 効用」 즉 代替費用을 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즉 限界効用理論에 立脚하고 있는 費用概念을 그들은 取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xW - yW'$$

에 있어,  $xW$ 를 提供하고  $yW'$ 을 獲得하는 A에게는 A가  $xW'$ 에 대해서 느끼는 全部効用  $U_A(xW)$ 이 代替費用이 되고,  $yW'$ 를 提供하고  $xW$ 를 獲得하는 B에게는 B가  $yW'$ 에 대해서 느끼는 全部効用  $U_B(yW')$ 이 代替費用이 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A에 있어서는  $U_A(yW')$ 만큼의 効用이 獲得되는 대신  $U_A(xW)$ 만큼의 効用이 喪失되며, 이와 반대로 B에 있어서는  $U_B(xW)$ 만큼의 効用이 獲得되는 대신  $U_B(yW')$ 만큼의 効用이 喪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 Blaug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代替費用의 理論은 모든 費用을 先行의 効用に 歸屬還元시킴으로써 需要와 供給을 둘 다 効用に 依存시키고 있다.」<sup>(4)</sup> 「뒤집을 수 있는 供給曲線(reversible supply curve)이라는 概念을 最初로 提示한 것은 Böhm-Bawerk의 有名한 말(馬) 市場의 例——거기에서는 말의 販賣者 自身이 말에 대한 用途를 갖고 있는 農民이다——에서 였다. 여기서는 供給은 商品生産에 드는 實質費用(real cost)에 의해서가 아니라, 供給者 自身이 갖고 있는 用途를 包含한 其他 用途를 排除하는 費用(cost

(3) N. Bucharin, *a.a.O.*, S. 62.

(4) M. Blaug,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revised ed., 1958, p. 492.



of excluding other uses including that of supplier himself)에 의해서 決定되게 된다.]<sup>5)</sup> 즉, Jevons·Böhm-Bawerk는 實質費用(勞動費用) 概念을 取하지 않고 効用理論에 立脚하고 있는 代替費用概念을 取하고 있는 것이다.

## V. 「被媒介的具體者」로서의 Marshall의 價格理論

以上 우리는 「直接的 具體者」인 Adam Smith·Malthus 등의 支配勞動價値論이, 學說史上에 있어, 어떻게 Ricardo·Marx 등의 投下勞動價値論과 Jevons·Böhm-Bawerk 등의 限界効用價値論으로 分裂對立되게 되었는데에 관해서 보아왔는데, 이와같이 分裂對立되고 있는 「正」과 「反」은 「合」으로 마땅히 止揚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 說明할 必要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곧 價値論이 더듬어야 할 辯證法的 發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實際로 價値論이 걸어온 過程은 「正一反一合」의 辯證法的 發展이 아니었고, 投下勞動價値論과 限界効用價値論 사이에 벌어진 「죽느냐 죽이느냐」의 必死的인 血鬪의 過程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投下勞動價値論과 限界効用價値論과의 사이에 展開되었는 論爭에 있어, 興味있는 事實은, 辯證法의 方法을 採擇하고 있다고 떠들어 대고 있는 Marx經濟學 信奉者들이 「正一反一合」의 眞正한 辯證法的 發展을 「理論的 折衷政策」이라고 하여, 무슨 輕蔑해야 할 思考方式인 것같이 全力을 다해서 排擊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를테면 「理論的 折衷政策」을 取하고 있는 Tugan-Baranowsky를 Bucharin은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排擊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는 Marx主義에 아첨을 하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빨갱이의 한 사람으로서 꼽고 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折衷의 使徒(Versöhnungs apostel)이다. 그는 프로레타리아트의 敵 및 그의 理論의 陣營에 뛰어들어 갈만한 勇氣를 갖고 있지 않다. 그는 다만 Marx主義를 非科學的要素로 부터 解放하는 것만을 좋아한다. 그는 簡單하게 勞動價値論을 否定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勞動價値論을 Böhm-Bawerk——부르조아의 情熱의 이 古典的 代表者——의 理論과 結付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sup>6)</sup> 우리는 여기서 投下勞動價値論과 限界効用價値論을 結合한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의 眞正한 辯證法이 가짜 辯證法에 의해서 無慘하게도 排擊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가짜 辯證法이 진짜 辯證法을 排擊하는데 있어 根據가 되고 있는 것도 역시 「革命」이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Bucharin에 의하면, Marx主義는 「革命的 프로레타리아트의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7)</sup> (즉 그는 지독한 惡性 「革命病」患者인 것이다!)

(5) *Ibid.*, p. 491.

(6) N. Bucharin, *a. a. O.*, S. 181.

(7) *Ibid.*, S. 180.

그러면 「被媒介的 具體者」로서의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支配勞動價值論은 어떻게 構成되어야 하는가. 앞에서든 言及한바와 같이, 우선 ① 「投下勞動價值論——限界効用價值論——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支配勞動價值論」과 같은 理論展開가 먼저 確立되어야 하며, 그리고 나서 ② 投下勞動價值論과 限界効用價值論은 이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支配勞動價值論의 抽象的 一側面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論證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理論展開는 다음과 같이 해서 이루어 질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우선 始元的 必然인 効用과 投下勞動이 交換에 있어서도 交換基準이 되고 있다는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이 確立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이 物物交換  $W-W'$ , 單純商品生産  $W-G-W'$ ,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begin{matrix} Pm \\ A \end{matrix} \dots P \dots W'-G'$ 에 있어서는 어떻게 支配勞動價值論으로 現象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同時에 投下勞動價值論과 限界効用價值論이 그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支配勞動價值論의 一部分이 되고 있다는 것이 論證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선 物物交換  $W-W'$ 의 段階에 있어서는,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은 다음과 같이 成立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단 1團體 對 1團體사이에서 物物交換이 行해지고 있다고 하며,  $W$ 商品의 所有者를  $A$ ,  $W'$ 商品의 所有者를  $B$ 라고 하기로 하고,  $xW$ 의 全部投下勞動量을  $L(xW)$ ,  $yW'$ 의 全部投下勞動量을  $L(yW')$ , 또  $A$ 의  $xW$ ,  $yW'$ 에 대한 全部効用을  $U_A(xW)$ ,  $U_A(yW')$ ,  $B$ 의  $xW$ ,  $yW'$ 에 대한 全部効用을  $U_B(xW)$ ,  $U_B(yW')$ 라고 하기로 한다.

$$\left. \begin{aligned} U_A(yW') > L(xW) \\ U_A(yW') > U_A(xW) \\ U_B(xW) > L(yW') \\ U_B(xW) > U_B(yW') \end{aligned} \right\} \dots\dots\dots (1)$$

$$\text{但 } U_A(xW) = \int_{a-x}^a f(z) dz, \quad U_B(yW') = \int_{b-y}^b f(z) dz$$

그러면,  $U_A(xW)$   $U_A(yW')$   $U_B(xW)$   $U_B(yW')$ 의 全部効用勞動量을 各各  $L_A(xW)$   $L_A(yW')$   $L_B(xW)$   $L_B(yW')$ 이라고 表示한다면, 上記 不等式 (1)은 다음과 같이 表示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left. \begin{aligned} L_A(yW') > L(xW) \\ L_A(yW') > L_A(xW) \\ L_B(xW) > L(yW') \\ L_B(xW) > L_B(yW') \end{aligned} \right\} \dots\dots\dots (2)$$

$$\text{但 } L_A(xW) = \int_{a-x}^a f(z) dz, \quad L_B(yW') = \int_{b-y}^b f(z) dz$$

그런데  $L_A(xW) > L(xW)$ ,  $L_B(yW') > L(yW')$ 가 또 成立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지 않으면 안될 줄 생각한다. 왜냐하면  $L_A(xW) > L(xW)$ ,  $L_B(yW') > L(xW')$ 이 成立되지 않고 반대로  $L_A(xW) \leq L(xW)$ ,  $L_B(yW') \leq L(yW')$ 가 成立되게 된다면, 經濟剩餘가 負值 또는 零值를 取하게 되므로 生産活動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L_A(xW) > L(xW)$ ,  $L_B(yW') > L(yW')$ 이 成立이 되기 위해서는, 生産者와 消費者가 一致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지 않으면 안될 줄 생각한다. 왜냐하면  $L_A(xW), L_B(yW')$ 은 生産者 A, B가 自己가 生産해낸 財貨에 대한 全部効用勞動量을 각각 表立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不等式 (2)는 不等式 (3)으로 轉換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8)

$$\left. \begin{array}{l} L_A(yW') > L_A(xW) \\ L_B(xW) > L_B(yW') \end{array} \right\} \dots\dots\dots (3)$$

즉 生産者와 消費者가 一致되고 있는 物物交換  $W-W'$ 에 있어서, 投下勞動이 交換基準에서 捨象되어 効用一元基準交換이 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다가 極大化原理를 加味한다면, 上記 Jevons의 交換方程式 즉 限界効用價值論이 成立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은 生産者와 消費者가 一致되고 있는 物物交換  $W-W'$ 에 있어서, Jevons의 限界効用價值論으로서 現象되게 되며, Jevons의 限界効用價值論은 적어도 生産者와 消費者가 一致되고 있는 物物交換  $W-W'$ 에 있어서, 妥當性을 갖고 있는 理論이라는 것이 以上에 의해서 밝혀졌을 줄 생각한다.

다음에는 物物交換  $W-W'$ 에 있어, 限界効用이 投下勞動量을 媒介로 해서 어떻게 支配勞動量으로 止揚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보기로 하자. 우리는 위에서,  $xW-yW'$ 에 있어,  $\frac{\phi_1(a-x)}{\phi_1 y} = \frac{y}{x}$  즉  $\phi_1(a-x) = \frac{y}{x} \phi_1 y$ 이 成立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것은 限界効用만에 관한 事項인 것이다. 거기에서는 投下勞動量은 완전히 度外視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投下勞動量에 投影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되게 될 것이다(第 8圖).

第 8 圖

$$\begin{array}{ccc} \phi_1(a-x) & \text{---} & \frac{y}{x} \phi_1 y \\ \left| \right. & & \left. \right| \\ L(1 \cdot W) & \text{---} & \frac{y}{x} L(1 \cdot W') \\ & & \\ 1 \cdot W & \text{---} & \frac{y}{x} W' \end{array}$$

즉  $\phi_1(a-x)$ 은 W商品 1單位の 平均投下勞動量  $L(1 \cdot W)$ 에 對應하게 되고,  $\phi_1 y$ 은  $W'$ 商品 1單位の 平均投下勞動量  $L(1 \cdot W')$ 에 對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

(8) 拙稿 前掲論文, 20-22面.

$L(1 \cdot W) \cong \frac{y}{x} L(1 \cdot W')$ 가 成立될 수 있으므로, 投下勞動價値論 즉 投下勞動量基準交換·等價交換에 관한 理論이 一般的으로 成立될 수가 없다는 것이 여기서 明白히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1 \cdot W - \frac{y}{x} W'$ 에 있어,  $\frac{y}{x} W'$ 의 投下勞動量  $\frac{y}{x} L(1 \cdot W')$ 은  $1 \cdot W$ 의 支配勞動量이 되게 되고, 또  $1 \cdot W$ 의 投下勞動量  $L(1 \cdot W)$ 은  $\frac{y}{x} W'$ 의 支配勞動量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 \cdot W$ 의 投下勞動量  $L(1 \cdot W)$ 은  $\frac{y}{x} W'$ 에 대한 支配勞動量이 되게 되고,  $\frac{y}{x} W'$ 의 投下勞動量  $\frac{y}{x} L(1 \cdot W')$ 은  $1 \cdot W$ 에 對한 支配勞動量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frac{y}{x} L(1 \cdot W')$ 은  $1 \cdot W$ 의 支配勞動量이 되는 同時에 또한  $1 \cdot W$ 에 대한 支配勞動量이 되게 되고,  $L(1 \cdot W)$ 은  $\frac{y}{x} W'$ 의 支配勞動量이 되는 同時에 또한  $\frac{y}{x} W'$ 에 대한 支配勞動量이 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限界効用은 投下勞動量を 媒介로 해서 支配勞動量 또는 支配勞動量으로 轉換된다는 것이 物物交換  $W - W'$ 에 있어 論證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리하여 物物交換  $W - W'$ 에 있어, 一般的으로 支配勞動價値論·不等價交換理論이 成立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支配勞動價値論은, 「投下勞動價値論—限界効用價値論—支配勞動價値論」과 같은 圖式에 의해서 形成된 辯證法的인 支配勞動價値論 즉 「被媒介의 具體者」로서의 支配勞動價値論인 것이다.

그런데 ① 모든 사람이 모든 生産物을 生産할 수가 있고, ② 勞動手段과 原材料를 使用하지 않고 勞動만으로써 生産이 行해지고 있으며, ③ 複雜勞動이 存在하지 않고 單純勞動만이 存在하고 있으며, ④ 交換當事者들이 交換되는 兩商品의 投下勞動量を 知悉하고 있는 物物交換  $W - W'$ 의 初期段階에 있어서는, 必然的인  $L(1 \cdot W) = \frac{y}{x} L(1 \cdot W')$ 이 즉 必然的인 投下勞動量基準交換·等價交換이 成立될 수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될 줄 생각한다. 즉 物物交換  $W - W'$ 의 初期段階에 있어서는, Marx의 投下勞動價値論·等價交換理論이 成立된다는 것이다. (9)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가지 沒却해서는 안되는 事項은,  $1 \cdot W - \frac{y}{x} W'$ 에 있어, 代替費用  $L_A'[(a-x)W]$  ( $\phi_1(a-x)$ 의 効用勞動量)은 實質費用인 支配勞動量  $L(1 \cdot W)$ 과 一致되고 있지 않으며 [ $L_A'[(a-x)W] \neq L(1 \cdot W)$ ], 또 限界効用勞動量인  $L_A'(yW')$  ( $\phi_1 y$ 의 効用勞動量)도 支配勞動量  $L(1 \cdot W')$ 과 一致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L_A'(yW') \neq L(1 \cdot W')$ ]. 그리고  $\phi_1(a-x) = \frac{y}{x} \phi_1 y$ 는 항상 成立되고 있어야 하지만,  $L(1 \cdot W) = \frac{y}{x} L(1 \cdot W')$ 는 항상 成立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고,  $L(1 \cdot W) \geq \frac{y}{x} L(1 \cdot W')$ 의 경우도 可能하다는 것은 더 說明할 必要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9) 同上, 39-40面.

다음에는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는, 어떠한 「被媒介的 具體者」로서의 支配勞動價値論이 成立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 物物交換  $W-W'$ 에 있어서는 Jevons의 限界効用價値論이 成立되고 있는 것같이,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는 Böhm-Bawerk의 限界効用價値論이 成立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Böhm-Bawerk의 限界効用價値論을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으로 부터 誘導해내는 일이고, 다음에는 Böhm-Bawerk의 限界効用價値論(價格決定理論)을 역시 投下勞動量을 媒介로 해서 支配勞動價値論으로 轉換하는 바로 그 일인 것이다.

單純商品生産  $xW-mG-yW'$ 에 있어서도 역시

$$L_A(mG) > L_A(xW)$$

$$L_A(mG) > L(xW)$$

가 成立되고 있다는 것은 더 說明할 必要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어서도, 商品의 生産者와 消費者가 一致되고 있으므로  $L_A(xW) > L(xW)$ 가 成立하게 되고, 따라서 不等式  $L_A(mG) > L(xW)$ 은 不等式  $L_A(mG) > L_A(xW)$ 속에 包含되고 있다는 것도 物物交換의 경우에 있어서와 꼭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꼭 같이 해서  $L_B(xW) > L_B(mG)$ 가 成立되고 있는 것이다. <sup>(10)</sup>

이리하여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도, 生産者와 消費者가 一致되고 있으므로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으로부터 投下勞動은 捨象 되고, 効用一元基準交換이 成立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도, 限界効用價値論이 成立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는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限界効用價値論은 投下勞動量을 媒介로 해서 어떻게 支配勞動價値論으로 轉換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陳述해 보기로 한다. Böhm-Bawerk의 말(馬) 市場 例示에서 提示되고 있는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는 다음과같은 關係가 成立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sup>(11)</sup>

$$\left. \begin{array}{ll} L(m_1G) > L_{A_1}(x_1W) & L_{B_1}(x'_1W) > L(m'_1G) \\ L(m_2G) > L_{A_2}(x_2W) & L_{B_2}(x'_2W) > L(m'_2G) \\ \dots\dots\dots & \dots\dots\dots \\ L(m_rG) > L_{A_r}(x_rW) & L_{B_r}(x'_rW) > L(m'_rG) \end{array} \right\} \dots\dots\dots (4)$$

$$\frac{m_1}{x_1} = \frac{m_2}{x_2} = \dots = \frac{m_r}{x_r} = P = \frac{m'_1}{x'_1} = \frac{m'_2}{x'_2} = \dots = \frac{m'_r}{x'_r} \dots\dots\dots (5)$$

$$x_1 + x_2 + \dots + x_r = x'_1 + x'_2 + \dots + x'_r \dots\dots\dots (6)$$

(10) 同上, 67面.

(11) 同上, 72面.

$$(m_1 + m_2 + \dots + m_r = m'_1 + m'_2 + \dots + m'_r)$$

不等式 (4)는,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는, 效用一元基準交換이 行해지고 있으며, 그리고 또 費用이 되는 것은 實質費用이 아니고 代替費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런데 不等式 (4)는 方程式 (7)으로 바꾸어 表示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sup>(12)</sup>

$$\left. \begin{aligned} \frac{F_1(a_1 - x_1)}{f_1(m_1)} = \frac{m_1}{x_1} = P & \quad \frac{F_1(x'_1)}{f_1(b_1 - m'_1)} = \frac{m'_1}{x'_1} = P \\ \frac{F_2(a_2 - x_2)}{f_2(m_2)} = \frac{m_2}{x_2} = P & \quad \frac{F_2(x'_2)}{f_2(b_2 - m'_2)} = \frac{m'_2}{x'_2} = P \\ \dots\dots\dots & \quad \dots\dots\dots \\ \frac{F_r(a_r - x_r)}{f_r(m_r)} = \frac{m_r}{x_r} = P & \quad \frac{F_r(x'_r)}{f_r(b_r - m'_r)} = \frac{m'_r}{x'_r} = P \end{aligned} \right\} \dots\dots\dots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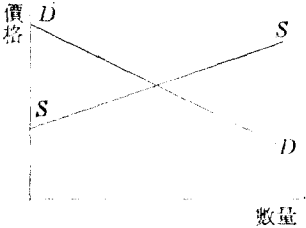
그런데 또 方程式 (7)은 方程式 (8)로 變形될 수가 있을 것이다.

$$\left. \begin{aligned} \frac{P^1_s(a_1 - x_1)}{U} = \frac{m_1}{x_1} = P & \quad \frac{P^1_d}{U} = \frac{m'_1}{x'_1} = P \\ \frac{P^2_s(a_2 - x_2)}{U} = \frac{m_2}{x_2} = P & \quad \frac{P^2_d}{U} = \frac{m'_2}{x'_2} = P \\ \dots\dots\dots & \quad \dots\dots\dots \\ \frac{P^r_s(a_r - x_r)}{U} = \frac{m_r}{x_r} = P & \quad \frac{P^r_d}{U} = \frac{m'_r}{x'_r} = P \end{aligned} \right\} \dots\dots\dots (8)$$

왜냐하면  $F_1(a_1 - x_1) = P^1_s(a_1 - x_1)$ ,  $F_2(a_2 - x_2) = P^2_s(a_2 - x_2)$ , ...,  $F_r(a_r - x_r) = P^r_s(a_r - x_r)$  ·  $F_1(x'_1) = P^1_d$ ,  $F_2(x'_2) = P^2_d$ , ...,  $F_r(x'_r) = P^r_d$  ·  $f_1(m_1) = f_2(m_2) = \dots = f_r(m_r) = f_1(b_1 - m'_1) = f_2(b_2 - m'_2) = \dots = f_r(b_r - m'_r) = U$ 가 成立될 수 있기 때문이다. <sup>(13)</sup> 단  $P_s$ ,  $P_d$ 는 각각 供給價格과 需要價格을 表示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U$ 는 一定의 定數를 表示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方程式 (8)과 方程式 (5) (6)은 方程式의 數  $[2(r+t)+1]$ 와 未知數  $(x_1, \dots, x_r, m_1, \dots, m_r, x'_1, \dots, x'_t, m'_1, \dots, m'_t, P)$ 의 數가 一致되고 있으므로, 未知數는 一義的인 値를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方程式 (8) 方程式 (5) (6)을 그림으로 表示한다면 물론 第9圖과 같이 되게 될 것이다.

第 9 圖



(12) 同上, 26面 參照.  
 (13) 同上, 49-51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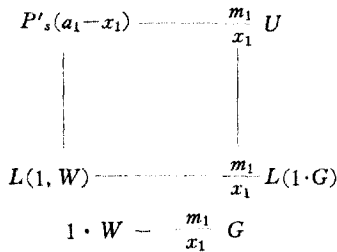
그리고 또 方程式 (8) 方程式 (5) (6)은 方程式 (9)와 一致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注意하지 않으면 안될 줄 생각한다.

$$\left. \begin{aligned} D &= D(p') \quad D'(p') < 0 \\ S &= S(p') \quad S'(p') > 0 \\ D(p') &= S(p') \end{aligned} \right\} \dots\dots\dots (9)$$

우리가 여기서 한가지 알아야만 될 事項은, 方程式의 函數(需要函數·供給函數)가 價格을 媒介變數로 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리고 方程式 (9)에 있어 變數가 되고 있는 價格  $p'$ 은 絕對價格을 意味하고 있으며, 그 絕對價格  $p'$ 는 相對價格  $P$ 에다가  $U$ 를 乘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는 「價格→數量」接近方法의 價格決定理論이 成立하게 되고, 그 反對인 「數量→價格」接近方法의 價格決定理論이 成立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는 超過供給이 發生되어도 하등 生産者가 損害를 보는 일이 發生되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 限界效用은 投下勞動量을 媒介로 해서 어떻게 支配勞動量으로 轉換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第 10圖)

第10圖



限界效用  $U$ 은 投下勞動量  $L(1·G)$ 가 되게됨으로써, 投下勞動量  $\frac{m_1}{x_1}L(1·G)$ 는  $1·W$ 의 支配勞動量이 되고 있는 것이다. 同時에 投下勞動量  $\frac{m_1}{x_1}L(1·G)$ 는  $1·W$ 에 대한 支配勞動量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서 우리가 沒却해서는 안될 事項은,  $1·W - \frac{m_1}{x_1}G$ 에 있어서는 限界效用勞動量  $U$ 는 支配勞動量  $L(1·G)$ 와 一致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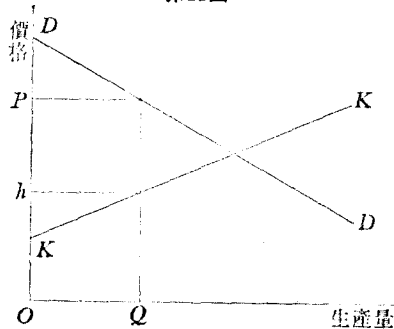
$$\left[ \text{따라서 } \frac{m_1}{x_1}U = \frac{m_1}{x_1}L(1·G) \right].$$

마지막으로 資本主義的生産  $G-W \left\langle \frac{P^m}{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있어서는 어떠한 「被媒介의 具體者」로서의 支配勞動價值論이 成立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 端的으로 말한다면, 資本主義的生産  $G-W \left\langle \frac{P^m}{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있어서는 Marshall의 「數量→價格」接近方法에 의한 價格決定理論이 成立되게 된다는 것이다.

$$\left. \begin{aligned} P &= P(Q) & P'(Q) < 0 \\ K &= K(Q) & K'(Q) > 0 \\ D(Q) &= K(Q) \end{aligned} \right\} \dots\dots\dots(10)$$

그러면  $G-W \left\langle \frac{P_m}{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있어 왜  $P=P(Q)$ 가 成立되고  $D=D(p)$ 가 成立이 안 되느냐 하면,  $G-W \left\langle \frac{P_m}{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있어서는 生産量=供給量은 그 全量이 即刻 需要價格으로 販賣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K는 生産量 Q의 極小平均費用을 表示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方程式 (10)은 왜 資本主義的 生産  $G-W \left\langle \frac{P_m}{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를 表示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 그런데 方程式 (10)은 第11圖에 의해서 表示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第11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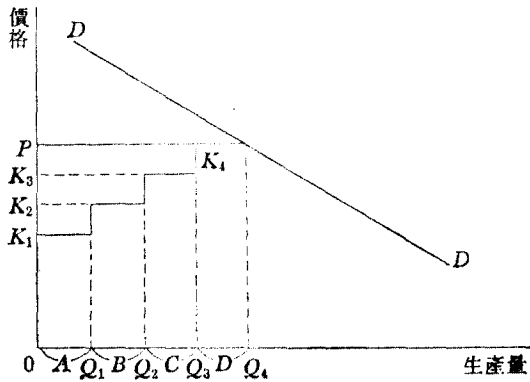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는 限界需要價格遞減曲線=需要曲線DD는  $G-W \left\langle \frac{P}{A_m}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의  $W' - G'$ 에 관한 事項이 되고 있으며, 極小平均費用曲線KK는  $G-W \left\langle \frac{P_m}{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의  $G-W \left\langle \frac{P_m}{A} \right\rangle$ 에 관한 事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必要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第 11圖에 있어,  $G' = OP \times OQ$ ,  $G = Oh \times OQ$ 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需要曲線 DD는 生産자가 自己가 生産해낸 財貨의 全量을 最大收入을 目的으로 즉각 販賣하려고 할 때의 價格을 表示해 주고 있는 平均收入曲線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Marshall의 「數量—價格」接近方法에 의한 價格決定理論 즉 方程式 (10)은 資本主義的 生産  $G-W \left\langle \frac{P_m}{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을 表示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줄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서 우리가 注意하지 않으면 안될 事項은, 方程式 (10)에 있어,  $P=P(Q) [P'(Q) < 0]$ 는 限界効用을 表示하고 있는데 대해서,  $K=K(Q)$ 는 實質費用을 表示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Marshall은 右上形態의 實質費用曲線을 Ricardo로부터 繼承받고, 右下形態의 限界効用遞減曲線을 Jevons로부터 繼承받아, 「數量—價格」接近方法에 의한 折衷價格理論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價値가 効用に 의해서 支配되느냐 또는 生産費에 의해서 支配되느냐 하는 것을 論하는 것은, 가위(缺)의 윗 날이 종이(紙)를 베느냐 또는 아랫 날이 종이를 베느냐 하는 것을 論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물론 한쪽 날



만을 움직여서 종이를 벨수 있을 것이며, 그리하여 종이를 벨것은 그 움직인 한 쪽 날이라고 間單히 말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嚴密히 말한다면 그 말은 옳지가 않다.»<sup>(14)</sup> 「生産費原理과 効用原理는 一切를 支配하는 需要供給法則의 構成部分이다. 그 각각은 가위 날의 한쪽 날에 비할 수가 있다.»<sup>(15)</sup> 이렇게 해서 Marshall은 限界効用價值論과 投下勞動價值論을 結合해서 價格決定理論을 完成시켜 놓았지만, 그에 있어서는 아깝게도 「歷史的 觀點」이 缺如되고 있었기 때문에, 自己가 完成해 놓은 折衷價格理論이 唯獨 資本主義의 生産  $G-W \left\langle \frac{P^m}{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있어서만 成立될 수 있는 그러한 價格理論이라는 것을 그는 완전히 認識하지 못하고 지내고 말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資本主義의 生産  $G-W \left\langle \frac{P^m}{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있어서는, 文字 그대로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이 成立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限界効用價值論은 價值決定에 있어, 그리고 投下勞動價值論은 實質費用表示에 있어, 그리하여 一定産業에 複數産業資本이 參加하고 있다고 할 때, 限界企業의 極小平均費用(正常利潤을 包含한)은 價格과 一致되게 될 것이다(第12圖).

第12圖



$$\begin{aligned}
 A \text{ 企業} & G_1(OK_1 \times OQ_1) - W \left\langle \frac{P^m}{A} \dots P \dots OQ_1 W' - G_1'(OP \times OQ_1) \right\rangle \\
 B \text{ 企業} & G_2(OK_2 \times OQ_2) - W \left\langle \frac{P^m}{A} \dots P \dots Q_1 Q_2 W' - G_2'(OP \times Q_1 Q_2) \right\rangle \\
 C \text{ 企業} & G_3(OK_3 \times OQ_3) - W \left\langle \frac{P^m}{A} \dots P \dots Q_2 Q_3 W' - G_3'(OP \times Q_2 Q_3) \right\rangle \\
 D \text{ 企業} & G_4(OK_4 \times OQ_4) - W \left\langle \frac{P^m}{A} \dots P \dots Q_3 Q_4 W' - G_4'(OP \times Q_3 Q_4) \right\rangle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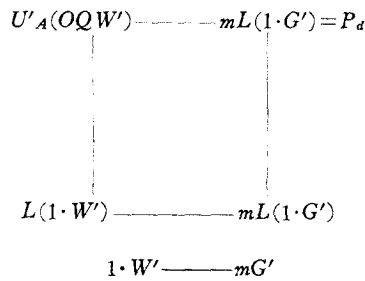
여기서 A, B, C 企業에 있어서는 超過利潤이 發生되고 있지만, 限界企業 D에 있어서는 超過利潤이 發生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더 說明할 必要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4) A,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8th ed., 1927, p. 348.

(15) *Ibid.*, p. 820.

그러면 다음에는 資本主義的 生産  $G-W \left\langle \frac{P}{A}^m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있어서는, 限界効用이 投下 勞動量을 媒介로 해서 支配勞動量으로 어떻게 轉換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한다. 方程式 (10)에 의해서 1商品의 價格은 그 社會가 生産 供給하는 그 商品의 全量의 限界需要價格에 의해서 決定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즉 上記 産業資本의 圖式에 있어, 價格  $OP$ 는  $OQ+Q_1Q_2+Q_2Q_3+Q_3Q_4=OQ_4$ 의 限界需要價格과 一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圖式이 成立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第 13圖)

第 13 圖



上記圖式에 있어,  $U'_A(OQW')$ ,  $mL(1·G')$ 는 一定商品  $W'$ 의  $OQ$ 量의 限界効用과 限界需要價格을 表示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限界需要價格  $mL(1·G')$ 는 投下 勞動量  $mL(1·G)$ 으로 投影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또 그 投下 勞動量  $mL(1·G)$ 는  $W'$ 商品 1單位의 支配勞動量이 된다는 것을 上記圖式은 意味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限界需要價格(限界効用勞動量)=支配勞動量이 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와같이 해서 資本主義的 生産  $G-W \left\langle \frac{P}{A}^m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있어서도 限界需要價格은 投下 勞動量을 媒介로 해서 支配勞動量으로 轉換된다는 것이 確認되었을 줄 생각한다.

Bucharin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분명히 限界効用理論은, 其他의 어떠한 法則은 될 수가 있어도, 다만 資本主義的 現實의 法則만은 될 수가 없다」고. (16) 원 千萬의 말씀을! 資本主義的 生産下에 있어 生産된 商品의 價格은 그 商品의 投下 勞動量에 의해서 決定되는 것이 아니고, 消費者의 그 商品에 대한 限界効用に 의해서 決定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Schumpeter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Marshall은 實質費用을 導入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지를 못했다」고. (17) 원 千萬의 말씀을! 만약 Marshall이 投下 勞動價值論에 立脚하고 있는 實質費用 대신에 限界効用價值論에 立脚하고 있는 代替費用을 導入했다면, 그는 資本主義的 價值論을 完成하지 못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Marshall은 限界効用價值論과

(16) N, Bucharin, a.a.O., S. 85.

(17) J. Schumpeter,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1954, p. 924.

投下勞動價値論의 두가지를 折衷함으로써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에 立脚한 資本主義的 價値論을 完成해 놓았지만, 아깝게도 그에 있어서는 그의 二元的 價値論이 Malthus가 提唱해 놓은 支配勞動價値論의 系列에 속하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言及하지를 않고 있는 短點이 있다.<sup>(18)</sup> 그리고 또 그에 있어서는, 物物交換  $W-W'$ 에 있어서의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의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에 관한 理論展開가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折衷의 使徒 Marshall은 限界効用價値論과 投下勞動價値論을 折衷함으로써 不完全한 形態의 「被媒介의 具體者」로서의 支配勞動價値論밖에 展開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Marshall이 不完全한 形態의 支配勞動價値論밖에 展開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不完全한 形態의 支配勞動價値論이야 말로 價値論史 2百年을 매듭지을 수 있는 意義를 갖고 있는 「被媒介의 具體者」로서의 支配勞動價値論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말해 두고자 하는 바이다.

(18) Schumpeter에 의하면, Marshall은 Malthus(Keynes는 그를「케임브리지學派의 始祖」라고 부르고 있다)의 弟子라고 불리우기보다는 Ricardo의 弟子라고 불리우기를 보다 더 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J. Schumpeter, *op. cit.*, p. 482)